

[아버지학교 10주년] 아버지가 사니 가정도 살았다

2005/ 페이지수: 2

**95년 시작, 10년 만에 1천회 개최 6만여 아버지 새롭게 태어나
범사회적 남성부흥운동으로 확대...2010년 60만명 수료 목표**

지난 11월 12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본부 68기 아버지학교의 개강으로 아버지학교는 창립 10년 만에 1000회를 돌파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1995년 10월 온누리교회 서빙고 자모실에 65명이 둘러 앉아 1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다. 올해로 10년을 맞은 아버지학교는 지금까지 국내 140여 개 지역, 해외 21개국에서 진행되었으며 12월로 1000회를 돌파했다. 지금 추세라면 2010년에는 60만 명이 수료할 것으로 아버지학교측은 관측하고 있다.

황은철 목사, 도은미 사모가 이끌던 아버지학교는 이들이 96년 브라질로 떠나면서 김성묵 장로를 리더십으로 세우고 새롭게 출발한다. 이 때 김 장로는 평생의 사역임을 직감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원자는 자꾸 줄어만 갔다. 스태프들과 기도하며 매달리던 중 97년 IMF가 터졌고, 아버지학교는 중대한 전기를 맞는다. 국가적 회오리바람 앞에 무너진 아버지들이 상처 입은 손으로 아버지학교의 문을 두드렸다. 한 기에 등록자가 120명을 넘고 대기자 명단에 200여명이 몰리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역도 경기를 넘어 대구, 포항 등 지방으로 넓혀져 갔다.

1998년 12월 12일 서빙고 온누리 경찬홀에 500여 명의 아버지학교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첫 비전나이트가 열렸다. 이들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라는 주제 아래 아버지학교를 전파하는 아버지학교의 전도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1999년 11월 28일 정말로 눈 덮인 한라산에서 아버지학교 제주 1기가 펼쳐졌다. 12월 18일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 '비전 2000'에서는 남성부흥운동본부를 세워 세계로 나갈 것을 선포하게 된다. 이때부터 매주 월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월요남성집회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역사상 유례없는 남성부흥운동이 아버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 땅을 휩쓸기 시작했다. 2000년 말 기준으로 수료자 6천명이 아버지학교를 수료했다. 이제 아버지학교는 세계를 향해 뻗기 시작한다. 중국 연변, 미국 포틀랜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1기 아버지학교가 시작했다. 5월에는 KBS '추적 60분'을 통해 아버지학교가 공중파를 타 아버지학교는 더욱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 이어서 열린 서울 27기에는 무려 160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기독교TV, CBS, SBS, 극동방송에 아버지학교가 소개됐다. 8월에는 대구 50사단의 요청에 의해 군부대아버지학교가 첫 선을 보였다.

그해 10월 2일 무주에서 열린 전국대표자 협의회에서는 아버지학교운동본부로 아버지학교의 명칭을 통일하고 글로벌한 아버지 회복운동을 준비하게 된다.

2001년부터 해외 아버지학교가 붐몰을 이루었다. LA, 뉴욕, 시카고, 워싱턴, 댈러스, 캐나다 밴쿠버와 캘거리에 아버지학교가 입성했다. 2001년 시작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버지학교는 연이어 기수를 이어갔고 2005년 8월에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아버지학교가 개최되기도 했다. 2002년 아버지학교는 수료자 2만 명 시대를 맞고 지역도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까지 확장되었다.

2003년에는 목회자 아버지학교 1기가 시작되었다. 북경, 단둥, 산둥, 광둥, 심양의 중국 아버지학교는 연합 가족한마당으로 350여 명이 참석했다. 11월에는 교도소로는 최초로 여주 교도소 아버지학교가 문을 열었다. 교정 역사상 유례없는 교정효과로 입소문을 타고 전국의 교도소로 퍼져나갔다. 여주교도소 아버지학교 5기는 2004년 MBC '일요토평'에 한 시간 동안 생방송 됐다.

2004년은 기독교적 색채를 줄인 열린 아버지학교가 큰 열매를 맺은 해기도 하다. 그 해 4월 현대고등학교에서 학원아버지학교 1기가 열렸고 8월에는 성북구청 1기 아버지학교가 열렸다.

그해 10월에 수료자가 5만 명에 이르자 아버지학교 국제운동본부는 전 세계에 그물망처럼 퍼져있는 아버지학교 해외 지부와 국내 아버지학교의 조직을 정비했다.

2005년 1월 8일 비전나이트는 3천 여 명의 아버지학교 수료자들과 가족들이 모여 '아버지들이여, 순결하십시오!'라는 구호 아래 순결 서약식을 치렀다. 이는 아버지의 순결이 이 나라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임을 선포한 것으로 아버지학교의 순결회복운동이 범사회적인 운동으로 퍼지는 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

/ 차명권 기자 salt@onnuri.or.kr

*** 출처 - 온 누 리 신 문**